



## ‘조선 성곽 건축의 꽃’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세자에 책봉됐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됐다.

수원 화성은 조선시대 수원의 도심 전체를 둘러싼 전체 길이 5.4km 가량의 읍성 형태 성곽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인근으로 옮기고 현릉원이란 이름 지은 후 다산 정약용에게 설계를 명령했다.

화성 성곽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이어지며 들쭉날쭉 이어졌다. 화성의 건축 과정을 기록한 비석 ‘화성기적비’에는 “봄의 버들잎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팔달산 아래에 유천 즉, 버들 개천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정조도 “성벽을 세 번 구부리고 세 번 꺾으면 이름처럼 ‘내 천’자 모양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간에 설치된 ‘방어시설’이 수원 화성을 기존의 읍성이나 성곽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했다. 일반적인 읍성은 야트막한 담장이 이어질 뿐 별다른 방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화성은 100m 간격으로 방어시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화성의 방어시설은 모두 48개소로 문·대·돈·누 등으로 크게 나뉜다. 성벽에 접근하는 적군을 공격하도록 튀어나온 치성(雉城), 군사가 머무르며 기거하는 포사(鋪舍)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어시설을 갖춘 성곽은 우리나라에서 수원 화성이 유일하다. 성문은 동서남북 4개가 있다. 동문은 창룡문, 서문은 화서문, 남문은 팔달문, 북문은 장안문이라 이름 지었다. 성문 밖에는 옹성, 즉 향아리같이 둥근 성벽을 돌려서 외적이 대포나 무기로 성문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중에서 북문과 남문은 옹성에도 문을 내 출입을 쉽게 만들었다. 한양에서 수원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망을 중시한 결과다. 대신에 성문 양쪽에 대칭으로 적대를 쌓고 뜨거운 물과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흠을 파서 방어력을 높였다.

수원 화성은 석재, 목재, 벽돌이 함께 쓰여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했고, 과거부터 이어지던 전통의 기술을 한층 개선해 적용했다. 또 중국과 서양 등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소화했고, 전쟁 대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고 상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의도가 하나로 합쳐졌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